

<동정자료>

김현미 장관, 韓 스마트시티, 싱 스마트네이션 공동협력 합의 국가개발부·교통부·스마트네이션청 고위급 협력, 고속철·메트로 수주 지원

-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8일(목) 싱가포르 국가개발부, 교통부, 스마트네이션청을 차례로 방문, 고위급 면담과 협력회의를 통해 양국 간 스마트시티 전략, 주택·도시 및 교통 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, 싱가포르-말레이시아 고속철도, 싱가포르 메트로 차량 등 우리 기업의 수주 활동을 지원하였다.

- 김 장관은 로렌스 워그 국가개발부장관과의 면담에서 아세안 협력과 신남방외교 추진에 대한 한국 정부의 구상을 설명하고, 싱가포르의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 정책과 한국의 주거복지 로드맵 및 도시재생 뉴딜 정책 추진에 관하여 상호 협력과 정책 개발에 합의하였다.
 - 양측은 국가 규모, 지역 상황 등 정책 여건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서민 주거안정, 낙후지역 재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양국 정부의 정책 목표의 공통점을 바탕으로,
 - 주택·도시분야 정부간 협력 정례화 및 주택금융·도시재생 분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, 12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6회 주택도시금융 포럼에 싱가포르 당국자와 전문가를 초청하기로 하였다.

- 코분완 교통부장관과의 면담에서는 현재 입찰절차가 진행 중인 싱가포르-말레이시아 고속철도사업과 싱가포르 메트로 차량사업에 대한 한국기업의 참여를 당부하였고, 양측은 철도·도로·항공·물류 등 교통인프라 협력과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지능형 교통체계 (ITS) 공동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.

- 스마트네이션청을 방문한 김현미 장관은 스마트시티가 한국 정부에서 중점 추진 중인 신남방 외교정책의 주요 협력분야임을 강조하고, 한-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한 프로젝트 공동수행 등 실질적인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하였다.
- 양측은 양국이 모두 스마트시티를 국가 핵심사업으로 추진중인 만큼 상호 협력을 통해 스마트시티 발전에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, 앞으로 다양한 방식의 협력을 모색하기로 하였다.
-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싱가포르는 올해 아세안정상회의 의장국으로 우리나라가 중점 추진 중인 신남방 외교정책의 중요한 파트너” 라면서, “오는 9월 개최되는 한-아세안 인프라장관회의 등을 통해 양국간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2018년 3월 9일

국토교통부 대변인